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September 9, 2022 Vol. 829

‘故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 LA에서도 거행

9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

故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9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거행된다.

이날 예배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배 설교는 이영규 목사(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증경총회장)가, 추모사는 김판호 목사(북미총회 직전총회장, 베데스다대학교 총장)와 배중구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전할 예정이다.

나성순복음교회는 “고인의 영적 유산을 기념하고, 고인이 평생 헌신한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 사명을 잊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인을 기리며, 그의 신앙을 추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14일 소천 받은故 조용기 목사는 1936년 2월 14일 경남 울산 울주



故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군에서 부친 조두천 장로와 모친 김복선 권사의 5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부산공고에 입학했으며, 학교에 주둔해 있던 미군 부대에서 학교장과 미군 부대장 사이의 통역을 맡으면서 영어 실

력 키우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사망선고를 받고 병상에서 누나의 친구로부터 처음 복음을 접한 뒤 부산에서 미국 오순절교단인 ‘하나님의성회(Assemblies of God)’ 소속

켄 타이스(Kenneth Tice) 선교사를 만나 집회 통역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됐다. 이후 폐결핵이 치유되는 신유의 경험을 하고 신학교 입학 결심했다. 1956년 9월, 20세 때 하나님의성회 순복음신학교에 입학해 후에 장모이자 목회 동역자가 되는 최자실 목사와 만났다.

1958년 5월 18일故 최자실 목사(1989년 11월 9일 소천)와 함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천막 교회를 시작했으며, 그 후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상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려졌다.

조용기 목사는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하나님의성회 총재를 역임하면서 제3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조 목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바탕으로 ‘희망의 신학’을 외쳤으며, 폭발적인 교회 성장으로 1993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인수 70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 최대의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故 조용기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문의 323-913-4499, lafgcusa@yahoo.com 김동욱 기자

美 복음주의 목사 3명 중 1명 “선행으로 천국 믿어”

미국 복음주의 담임목사의 3명 중 1명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 문연구소(CRC)는 지난 5월 전국 교회 및 교단 소속 목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새 보고서는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 2022’(American Worldview Inventory 2022)를 기반으로 미 목회자들의 신념과 행동을 묻는 36개 이상의 항목을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응답한 담임목사의 34%는 “대개 선하며, 타인에게 충분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천국에서 자리를 얻

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 3분의 1 이상은 “성령은 살아계신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순결의 상징”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담임목사 3명 중 1명은 “서로 사랑한다고 믿는 두 미혼 사이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 용인한다”고 답했으며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각자가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담임목사의 30% 이상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낫다”, “재산 소유권 허용이 경제적 불평등을 조장하는데 동의한다”,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호하므로, 성경적 원칙에 따라 낙태에 대해 강력히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나이가 복음주의 목회자 중 43%는 “개인의 재산 축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관리하도록 그분이 제공했다고 믿지 않는다”며 성경적 자본주의와 거리를 뒀다.

복음주의 목회자의 39%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는 없으며, 각자가 스스로 진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38%만이 “인간의 생명이 신성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중 37%는 “구체적으로 무엇, 누구에 대한 믿음보다 보편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복음주의 목회자 10명 중 거의 3명(30%)은 “사람들은 죄가

운데 태어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것”이라는 구원론에도 반대했다.

올해 5월 애리조나 크리스천대학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목회자 중 37%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미국의 모든 주요 교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든 교파 집단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경적 믿음의 상실의 만연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신앙관에 초점을 둔 새 보고서도 목회자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 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미주기아대책본부 20주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20주년 기념 선교 포럼, 오는 10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메릴랜드 벤엘교회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이하 KAFHI)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메릴랜드 벤엘교회(담임 백신중 목사)에서 선교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KAFHI는 20주년을 맞아 국제적 선교 구호단체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미주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및 사회와 파트너십을 새롭게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교 포럼은 ‘선교동역’(Missional Partnership)이라는 주제로 손봉호 교수(한국기아대책 명예이사장), 유원식 회장(한국기아대책), 랜디 호그 회장, 폴 현

총장(북미주 KCBMC), 조용중 선교사(글로벌 호프), 박신욱 대표(씨드 국제 선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류영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김철수 선교사(케냐), 강명관 선교사(KAFHI, 아마존) 등 여러 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정승호 사무총장은 “KAFHI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 기아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국내외 사람들의 생존을 도우며, 지역 발전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하며 각 분야의 선교 전문가들과 함께 선교적 파트너십의 중요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정 사무총장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선교사, 교회, 파송 단체, 후원기업이 유기적인 연합과 파트너십으로 전인적 구원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포 포럼 등록비는 1인 200달러, 부부 300달러, 선교사 및 후원이사 100불이며, 2박 3일 숙식과 기념품, 도서가 제공된다. 숙박 제공이 필요없는 지역 목회자와 지역 후원자의 등록비는 100달러다.

등록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이메일 kafh@fh.org 또는 전화 847-296-4555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 은퇴... 마지막 설교서 ‘목적이 이끄는 삶’ 강조

오는 12일 후임 앤디 우드 목사 취임식 예정

미국 초대형교회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 릭 워렌 목사가 최근 담임목사로서 4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워렌 목사는 지난 8월 28일 마지막 주일예배에서 1980년 개척 당시 낯선 이들에게 처음 전했던 설교를 떠올리며 “목적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했다.

이날 그가 마지막 설교를 전하기 위해 강단에 오르자, 교인들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워렌 목사는 “여러분들은 날 울게 만든다. 너무 사랑한다”며 “지금쯤 아시다시피, 이것이 담임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



릭 워렌 목사(오른쪽)와 케이 워렌 사모. ©새들백교회

하는 설교다. 43년 동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잠들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특권이었던”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43년 동안 저는 6,500번 이상의 말씀과 설교를 전하고 강연을 했다. 이 6,500번 이상의 모든 말씀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전했던 말씀을, 우리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반복하고 다시 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곳 우리 교회에서 고수하는 가치 중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가치는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 이를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미리 알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이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워렌 목사는 “우리는 돈도, 교인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말씀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

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메시지를 작성하고 43년 동안 딱 한 번 설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활절 1주일 전인 1980년 3월 30일, 라구나힐스고등학교의 작은 극장에 약 5,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첫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순히 지역사회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알리는 편지를 보냈고, 그 교회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하게 됐다. 이 설교를 할 당시에는 교회(건물)가 없었다. 정말 시작이었다”고 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예코교회를 이끌던 앤디 우드(Andy Wood) 목사와 스테이시 사모가 새 리더십을 인계 받게 되며, 우드 목사의 취임식은 9월 12일 열린다.

강혜진 기자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진행한 중보 기도 축제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중보 기도 축제를 개최했다. 새누리교회는 매년 8월에 중보 기도 축제를 갖는데, 한 달간 기도에 집중하며 개인적인 기도와 교회, 소그룹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축제다.

13년 전 시작된 이 기도회는 성도들을 향한 박성근 목사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박 목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주고자 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삶의 해답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미주에서는 기

남가주 새누리교회 ‘중보 기도 사역’ 활성화 주목

도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중보 기도 축제였다.

올해 중보기도축제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길 원하는 성도들이 가득 모였다.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집회에는 1천 여명의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그간 새누리 교회는 중보기도축제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었다. 성도 개인들의 기도가 성숙해지고,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 또 많은 헌신자들이 기도축제를 통해 세워졌다. 아울러 교회 안에 70여 개의 중보 기도 팀이 자생적

으로 활동하는 것도 중보기도 축제의 열매다.

특히 교회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은 중보 기도팀 구성으로 시작된다’는 전통이 생길 정도로 성도들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됐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중보기도축제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는 “최근 남가주 지역에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중보기도팀들도 활성화 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이겨낸 교회와 기도팀이 지지개를 켜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아!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남가주 차세대 목회자 설교 축제’ 제7회 한인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 열린다

10월 1일(토) 오후 2시
감사한인교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제7회 남가주 한인 신학대학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1일(토) 오후 2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열린다.

남가주 한인신학대학 총장들과 담당교수들은 올해 설교 페스티벌 주제를 “이제 다시 회복의 길로”고 정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인교회와 현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설교 페스티벌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



지난해 총현선교회에서 개최된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설교 페스티벌 ©기독교일보

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13개 대학 중 8개 대학의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들과 청중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당일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는

설교 우수상, 모범상, 주해상, 전달상을 정해 \$1,500 상당의 장학금과 상장이 주어지고, 우수한 학교에는 트로피가 증정된다.

참가한 학생들 개인에게도 \$500 장학금이 전달되고, 우수 설교자는 미주복음방송국에서 설교를 방송할 예정이다. 당일 참석한 모두를 위해서 저녁식사와 간단한 선물이 준비된다.

한편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됐다.

문의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사무국장 박인호 목사 (213-663-2228)

김동욱 기자



사역 차를 기증받고 기뻐하는 아버지밥상교회 교인들. 가운데 남가주새누리교회 선교담당 안수집사, 맨 왼쪽이 고무디 목사. 새로 기증 받은 차 옆으로 아버지밥상교회가 그동안 사용해 온 노후된 차량이 보인다.

남가주 새누리교회, 아버지밥상교회에 ‘카고 밴’ 기증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가 LA 한인타운 노숙사역 단체인 아버지밥상(대표 고무디 목사)에 노숙 사역 지원을 위한 차량을 기증했다.

지난 6일 남가주 새누리교회가 기증한 차는 2008년식, 주행거리 11만 마일의 카고 밴으로 1만3천499달러에 구매해 아버지밥상에 전달했다.

남가주 새누리교회는 그동안 크고 작게 아버지밥상의 다운타운 노숙자 사역에 협력해왔다. 정기 후원을 비롯해 매달 한 번씩 음식을 장만해 다운타운 노숙자들을 먹여 왔다.

이번 기증은 다운타운 노숙자 사역에 함께했던 새누리교회 사역팀이 아버지밥상

의 노후 된 차를 보고, 새누리교회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이뤄지게 됐다.

아버지밥상은 기증받은 차를 365일 계속되는 LA 다운타운 노숙자 음식 사역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전도집회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품을 나누는 일에도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고무디牧사는 “그동안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30년도 넘는 카고 밴으로 사역을 해왔던 아버지밥상교회 사역자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지역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은 교회가 노숙 사역에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정기 조찬기도회 개최

“OC 지역 교계에 선한 영향력 확산되도록 섬길 것”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정기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지난 3일(토)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9월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신용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기도회는 이소연 이사의 대표기도에 이어 OC교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위대한 인생의 삶’(마 20:26-28)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심상은 목사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위대한 인생”이라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대표기도에서 이소연 이사는 “연합회를 42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 섬기고 성도간의 활발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연합회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연합회는 지난 달 “3050 21인 차세대 목

회자 초청 OC영적대각성 다니엘새벽기도회”와 “차세대 목회자 영성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신용 회장은 “8월은 OC교회를 중심으로 OC 기독교 단체가 연합해 함께 기도하며 OC 지역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 한 마음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평가하고 “OC 지역 교계에 더욱 선한 영향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아침 8시, 애너하임에 소재한 에반젤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정기 조찬기도회를 개최한다.

연합회 참여 문의는 이메일 info@ockca.org 또는 562-399-2022(신용 회장)으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청빙!

캘리포니아 부에나팍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찬양대 파트타임 드럼 연주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 교구담당 풀타임 부목사

1. 자격요건
 - a. 신실하게 팀 사역에 동참할 사역자
 - b. 공인된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목사
 - c. 미국 거주 및 취업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분
2. 담당 사역
 - a. 교구 담당 및 교회 전반의 사역
3.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배경, 신앙간증, 은사, 장단점, 사역철학, 가족소개 등)
 - c. 최종학력 증명서와 목사 안수 증명서
 - d. 추천서 2부
 - e. 최근 6개월 내 본인 설교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 파트타임 찬양대 드럼 연주자

1. 사역 일정

주일 예배: 1부(7:30), 2부(9:30), 3부(11:30)의 예배 반주(협의 가능)
 금요 예배: 저녁 7시 30분 예배 반주
2. 제출 서류
 - a. 자기소개서
 - b. 신앙고백서

■ 교구 및 심방담당 풀타임 또는 하프타임 여자전도사

1. 자격 요건
 - a. 정규 신학을 마친 분
 - b.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신 분
 - c. 교구 및 심방의 5년 이상 사역 경험 있으신 분
2. 제출 서류
 - a. 이력서(사진 포함)
 - b. 자기소개서 (신앙간증, 은사, 사역철학, 심방 및 교구 사역 경험, 앞으로의 사역 각오, 가족소개)
 - c. 최종학력 증명서

<서류 제출>

kogh@thanksgivingchurch.com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주시고, 서류 접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청빙 절차 면접은 지원 마감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마감은 2022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문의사항>

교회 웹사이트: www.Thanksgivingchurch.com
교회 주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담당자: 고귀한 목사 (714-521-0991)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우 김수미 “56년 만에 주님 만나...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48차 CBMC 한국대회서 간증

배우 김수미가 최근 제48차 CBMC 한국대회에서 '진작에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고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56년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김수미는, “푸른나무교회 박수광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다”고 했다.

이날 행사가 지체되면서 예정보다 1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 연단에 오른 김수미는 “저 성깔 있다. 만약 제 시간 딜레이되면 말없이 간다. 방송계에 알아 보라. 제가 출연하는 영화 드라마 스태프들 초긴장한다”며 “그런데 오늘 아름답게 기다렸다. 주님을 알면 이렇게 달라진다. 저 (출연료) 몇 시간에 1천만 원이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는) 돈을 주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왔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수미는 “많은 카메라 앞에서 봤지만, 오

늘 오는 길에 가슴이 무척 설렸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보다 믿음이 아주 작다.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며 “간증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줄 모르겠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제 죽을 때까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수미는 또 “제가 국문학과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등록금이 없었다. 그때 고 이근삼 교수님이 토틀트 시험을 보라고 해서 당시 4천 명 중 30명 뽑는데 합격했다”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또 김수미는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며 “연예계에서 6년 전부터 PD들이 웃긴 말로 '김수미가 죽으려 하다가 많이 죽었다'”고 한다. 저는 남편을 너무나 미워하고 살았는데, 주님을 알고 너무나 예뻐하게 됐다. 똑같은 남자고 지금은 더 별 볼 일 없는데 새록새록 예뻐진다.”



CBMC에서 간증한 김수미. ©CBMC

나 같은 죄인을 너 같이 좋은 집안 아들 만나 아들 딸 잘 넣고 손자 씨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밥만 먹고 도망가던 남편이 지금은 숨을 크게 쉬고 산다. 주님께 감사하다. 몇 번이고 헤어질까 했는데, 주님께서 자식 손주까지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비에 우리 집도 비가 새게 됐다. 알아 보니 옥상 정원을 철거하고 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옥상 철거비가 1,500만원 나오고, 방수 비용은 네 집이 나눠 내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같았으면 옥상 철거 못한다 했을 텐데, 우리 집사님이 '옥상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길래 '멀쩡히 가다 맨홀에 빠져 죽은 남매도 있는데 옥상 철거를 뭘 신경 쓰느냐'고 답했더니 '거인이십니다' 하더라. 철거하면 되지 뭐가 걱정인가. 빨리 철거하고 방수해서 남의 집 물안 새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진다. 마음이 편해졌다. 아무 걱정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수미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계심을 믿습니다. 천하의 김수미가 주님 앞에서 하찮은 작은 양으로 변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앞으로 마음 편하고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축복 속에 은혜 받길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했다.

김대원 기자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나타난 현상들

SBNR · 플로팅 크리스천 증가 온라인 신앙 등

지난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한국교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포도원교회(담임 김문훈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트렌드 2023-한국교회를 말한다' 세미나에서 기조발제하며 통계를 근거로 이를 분석했다.

① SBNR의 증가

'Spiritual but not Religious'를 뜻하는 SBNR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예장 통합총회와 기아대책,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예장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이하 A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은 장년 성도를 기준했을 때 73%였다. 교회학교는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즉 코로나19 이전 출석한 장년 교인 10명 중 3명 정도, 교회학교 아이들 10명 중 6명 정도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세 개 단계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지용근 대표 ©기아대책

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조사(이하 B조사) 결과 64%가 현재 영적 갑갑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72%는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고도 했다.

② '플로팅 크리스천' 의 증가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은, 이름 그대로 '떠 있는'(Floating) 기독교인들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교회들의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듣는다.

B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달 간 타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거나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들 중 56%는 그런 교회가 2개 이상이라고 답했다.

또 김 목사는 '플로팅 크리스천'의 세 가지 특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다 △교회 내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들에게 담임목사의 영향력은 축소된다는 것을 들었다.

③ 온라인 신앙

B조사에서 82%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53%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각각 답해, 이런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④ 신앙 약화

B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의 질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 39%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과거와 비교해 보면, 해마다 그 비율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 12월 조사에서는 27%, 2021년 6월 조사에서는 31%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⑤ 희망

A조사 결과 '향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서 “감소할 것 같다” 44%, “변화가 없을 것 같다” 29% “증거할 것 같다” 24% 순으로, 이 자체

로만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 않았지만, “증가할 것 같다”는 응답 비율은 과거 다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2020년 5월 조사에서 이 같은 답은 5%에 불과했고, 2021년 6월 조사에서는 16%였다.

향후 출석 교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회 유형으로는 △연한이 짧을수록 △담임목사 연령이 40~50대 △소그룹 유지율이 높을수록 △새로운 방식 소그룹 운영 교회였다.

⑥ 교회의 대응 방향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 대표에 따르면 소그룹 활동은 참여자들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영성 유지에 도움을 주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일상생활에 활기와 자극이 된다.

또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자에 비해 신앙 나눔, 성경공부, 큐티 나눔 등 신앙생활 지표에서 2~4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정기적 소그룹 활동자는 교회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현장에 배 참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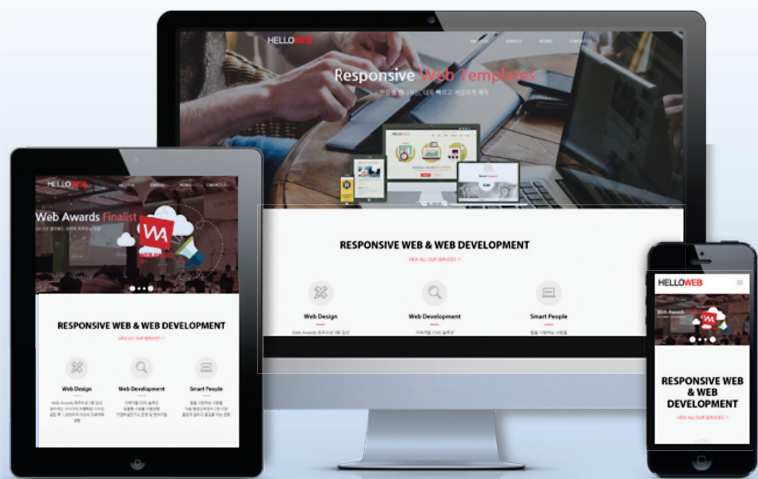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 게시판 / 갤러리 / 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컨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주일 출석 성도 3천여 명대”

주일에에서 1만성도 파송운동 관련 소식 전해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 분당우리교회 출석 성도가 3천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수 목사는 9월 4일 주일 오전 설교 말미에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후 (출석 성도가) 5천 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 1년 강제 안식년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당초 성도들의 순조로운 파송을 위해 1년 간 안식년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이목사는 “교회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게도, 1만 명 이상이 파송 가기로 약속하고 가셨다. 29개 교회는 모두 자립했다”며 “그래서 강제 안식년을 가지 않고, 그냥 안식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 저희는 여전히 기존 신자들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전부 예수님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등

록하고, 지금도 계속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며 “많을 때는 20-30명씩 등록할 때도 있다. 사역자들이 감사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좀 불안해한다. 계속 숫자가 늘어나, 다시 5천 명을 넘기면 어쩌하나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전도하시려는 분들도 강제 안식년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곤란할 수 있다”며 “그래서 추석 이후 9월 셋째 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안식년을 갖고) 성도 숫자 평균을 내서 5천 명 이상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3부 예배 설교에서 그는 “1부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바로 연락들이 오신다. 교회가 안정도 안 됐는데 또 흔들릴 거냐고”라며 “오해라고 말씀드렸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기에,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겨서 5천 명 이하로 점검을 받고



이찬수 목사가 4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유튜브

매듭을 짓기로 한 것이다. 마음껏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목사는 “그렇다고 9월 넷째 주부터 집에서 예배드리야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 어차피 파송운동 이후 지금까지 출석 5천 명을 넘긴 적이 한 번도 없다. 3천 몇백 명씩 모이

고 있다”며 “성도 여러분은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동안 출석했던 근거를 갖고, 이후에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천 명 이하로 줄었으니, 우리 목사님은 계속 계시겠네” 하셔도 안 된다. 제가 너무 오래 여기 있어 하나님을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떠나야 한다. 아니, 쫓겨야 한다”며 “하나님 영광을 방해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익숙해진 설교자 이찬수 목사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하나님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목사는 “주보 미리 검색해서 (설교자 누군지 찾아보고) 교회에 올지 말지 결정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콘서트”라며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저는 오래오래 여러분과 사역하고 싶다. 그러니 쫓아내지 말아 달라. 과도하게 제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달라. 그러면 오래오래 기쁨으로 예배 인도자 될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악명 높던 전 삼성전자 과장의 참회, 300만을 울리다

악명 높던 전 대기업 과장의 간증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300만을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구촌교회가 몇 주 전부터 유튜브 'The Life 지구촌교회 - 더라이프지구촌교회' 채널에 시리츠로 올린 이 간증은 '삼성전자에서 초고속 승진한 젊은 과장의 참회', '삼성전자 악명 높은 과장의 별명은 왜 지프지프지프지', '삼성과장 눈이 퉁퉁 부어 출근하지 못한 사연',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던 직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간증을 전한 윤 씨는 “삼성전자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젊은 나이에 빠른 승진으로 기세 등등한 나였다. 200여 명의 사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시 내 눈에는 부장으로 진급하기 위한 실력만이 존재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며 “또한 부하사원들을 내 진급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

내내 떨리는 손과 목소리로 간증을 이어간 그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간다며 특근을 거부하였고, 그럴 때마다 나는 소리를 바라바라크 지르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정신상태가 글러먹었다는 등 단체 팀워크도 모르는 초이기적인 생각이라는 등 회사 때려치우고 교회나 가라는 등, 대놓고 퇴사를 종용했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잠시 뒤 그는 “화가 덜 풀린 나는 인사팀에 전화해서 왜 예수쟁이를 뽑아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며 똑바로 하라고 소리를 고래고래치르며 전화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 다시 이 따위 이유로 되돌리지 못하게 엽포를 놓았다. 왜냐면

나는 누구보다도 부장으로 진급해야 했었고, 그것만이 내 능력의 끝판왕이었다”며 “윗사람에게는 능력자로 인정받았지만 부하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악마로 통했다. 오죽하면 내 별명이 왜지프지프지프지프지프지프지프지X하라 해라”라는 뜻”이라고 했다.

윤 씨는 “완악하고 완강한 바로 왕처럼 나에게 많은 이적이 나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었다”며 “그런데 20년이 지난 일을 왜 하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보여 주셨을까. 나에게 온갖 욕과 망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매번 찾아와 애원하던 그 눈빛이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야 보였다. 실제 그중에 몇 명은 견디다 못해 퇴사한 사원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완악하고 오만한 나로 인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울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렸을까. 나로 인해 실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매질이 내 마음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후배 사원들과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 무릎 꿇고 기도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아침 출근 시간을 넘기고 한참을 회개하며 울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퉁퉁 부었고 오전 출근을 못하고 내내 옆드려 회개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 후에도 나는 후배들을 위한 기도를 가을 내내 했다”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신의 기자

소강석 목사 “총회 안정·화합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예장 합동 선거관리위원장인 소강석 목사가 “한기승 목사님의 양해서 제출과 오정호 목사님의 사과문 게재 등의 합의를 봄으로써, 선관위에서 오정호 목사님의 후보 확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목사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일 있었던 선관위 전체회의 결정에 대한 심경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교단 선거규정 위반 혐의로 피고발됐던 오목사(서대선교회 새로남교회)를 차기(제107회) 부총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소목사는 “(선관위 회의에서) 오정호 목사님의 심의 탈락 반대와 찬성이 각각 7대 7로 동수가 나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순간적 판단이 서지를 않았다”며 “선관위원들 가운데도 7대 7로 동수이면 탈락이니, 확정이니 논란을 계속하며 법해석을 달리했다”고 했다.

그는 “총회의 안정과 화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에게는 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왔고 선관위의 일치되지 않는 판단보다는 총대들에게 선택권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했다.

“이후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다”는 소목사는 “그런데 한기승 목사님의 양해서 제출과 오정호 목사님의 사과문 게재



예장 합동총회 선거관리위원장인 소강석 목사가 1일 선관위 전체회의에 임하고 있다. © 소강석 목사 페이스북

재 등의 합의를 봄으로써, 선관위에서 오정호 목사님의 후보 확정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1일) 선관위 회의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선관위의 입장을 기독교신문에 게재하기로 하고, 또한 세분의 변호사들의 자문을 수용하여 기독교신문에 오정호 목사님의 사과문과 한기승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글을 게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목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엄연히 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차후로는 위법 선거운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내면서, 총회의 화합과 상생,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합의도 도출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미주 기독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수면 대장내시경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수면 위내시경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환율변동)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총합진센터 이찬수 소장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프랭클린 그래함, 고르바초프 사망 애도 “냉전 종식에 큰 공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지난 30일 91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을 추모했다.

그래함 목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냉전 종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오랜 투병 끝에 30일 저녁 러시아 중앙 임상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래함 목사는 고르바초프가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함께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레이건 대통령은 서베를린에 서서 ‘고르바초프 씨, 이 벽을 허물죠’라고 말했고, 몇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회상했다.

그래함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부친 고(故) 빌리 그래함 목사가 1987년 백악관에서 고르바초프를 처음 만난 뒤 1991년 소련

을 방문했던 경위를 밝혔다.

그래함은 “내 부친은 도덕적 문제와 사회에서 영적 가치의 필요를 논의하고자 크렘린궁에서 그를 방문했다”며 “당시 아버지는 전도학교를 이끌며 설교 준비를 위해 모스크바에 계셨고, 고르바초프에게 러시아의 종교 자유를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다.

그는 부친이 당시 “고르바초프에게 분명 과오가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러시아 지도자로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그가 많은 선행을 했다고 믿으셨다”고 전했다.

그래함은 고르바초프가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모든 일과, 러시아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감사하다”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열어주었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재단 및 연구소도 성명을 통해 “한 때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비에트 연방(소련) 대통령이 지난 30일 저녁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KGUN-TV 보도화면 캡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지도자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전했다.

성명은 “레이건 대통령이 마침내 영원하던 관계를 가진 기회를 갖게 된 것이 고르바초프 총서기였다. 이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긴장 완화와 결국 의미 있는 군비 감

축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고르바초프를 “다른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상상력과 이를 실현코자 자신의 경력 전부를 걸 용기가 있는, 놀라운 비전을 가졌던 인물”이라 치하하며 “그의 가족과 친구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의 신념으로 혜택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1931년 남 러시아 캅카스 인근의 마을에서 태어난 고르바초프는 1952년 공식적으로 공산당에 입당, 1980년에 최연소로 소련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1985년 소련의 지도자에 오른 그는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을 표방하며 정치 자유화를 도입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동유럽 개혁과 소련 해체 등 냉전 종식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김유진 기자

트랜스젠더 부부, 4세 남자아이 성전환... ‘돈벌이’ 이용 논란



노엘라 맥마허의 옛날/최근 모습. ©노엘라 맥마허 인스타그램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에서 트랜스젠더 부부가 4살 남자아이를 성전환시켰을 뿐 아니라 아이의 성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뉴욕포스트와 데일리메일 등은 최근 세계 최연소 트랜스젠더 모델 노엘라 맥마허(10, Noella McMahon)가 오는 9월 뉴욕 패션위크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여러 보도에서 할리우드 에이전트는 “노엘라가 내년에는 100만에서 200만 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노엘라 맥마허는 현재 걸으로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여성’인 트랜스젠더 디 맥마허(35, Dee McMahon)와 레이 맥마허(32, Ray McMahon)를 부모로 두고 있다. 노엘라는 다섯 살 때부터 사용한 이름이다.

디는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노엘라는 2살 때부터 자신이 소년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남자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며 “4세에 성전환을 했고 7세에 법적 성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부 티모시 맥코드(Timothy McCord)는 노엘라의 성전환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티모시가 화내고 있는 노엘라를 붙잡는 과정에 노엘라의 팔을 다치게 해 경찰에 체포돼 감옥에 갔고, 소송에서도 졌기 때문이다. 티모시는 디와 2019년 이혼했고, 2021년 노엘라는 디와 그녀의 새 배우자인 레이에게 입양됐다.

티모시는 “할 말이 없다. 더는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이의 삶을 너무 공개하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자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신의 기자

美 법원 “동성혼 촬영 거부 기독교인 작가 처벌 부당”

켄터키주 루이빌시 조례에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미국의 기독교인 사진 작가이자 블로거인 첼시 넬슨 ©첼시 넬슨 제공

미 연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결혼식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서부지법의 벤자민 비튼(Benjamin Beaton) 판사는 “켄터키주 루이빌시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첼시 넬슨(Chelsey Nelson) 사진작가에게 LGBT 차별금지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비튼 판사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시의 조례가 넬슨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비튼 판사는 “시는 레스토랑, 호텔 및 상점에 소유주의 견해나 고객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가수, 작가 또는 사진작가에게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메시지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특히 소수자 의견의 자유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핵심 전제이다. 수 년에 걸쳐 지배적인 정서와 정치가 변화해 왔지만, 다양한 견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는 여전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비튼 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동성 커플과 그 지지자들의 담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 헌법은 법적 문제로서 루이빌의 공정성 조례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법원은 시가 넬슨의 사진과 글을 강제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넬슨의 사건을 맡은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조나단 스크럭스(Jonathan Scruggs)는 지난 8월 7일 성명에서 “첼시와 같은 사진작가와 예술가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생활하고 신앙에 따라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스크럭스는 “법원이 첼시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첼시에 대한 루이빌시의 조례 집행을 중단한 것은 옳았다”면서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그러나) 자신이 반대하는 개념을 지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으며, 시는 그녀의 사진과 블로그에 대한 편집권을 제거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해 더 많이 기도할수록 그들의 안위를 더 많이 염려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끼며,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원칙을 실행에 옮기면 전적으로 변화 될 것이다.

김유진 기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 “교회 연합을 돕는 7단계는”



마이클 브라운 박사 ©크리스천포스트 제공

기독교 라디오 ‘더 라인 오브 파이어’(The line of fire) 진행자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가 ‘교회의 연합을 돕는 7단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브라운 박사는 마태복음 12장 25절을 인용하며 “우리(교회)가 스스로 분열하면 파멸되어 서 있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서지 못하면 우리 조국도 서지 못한다”고 단언했다.

분열을 넘어선 교회 연합을 위해 그는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일치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윤리적 또는 교리적 타협에 기초하면 일치하는 진짜가 될 수 없다”며 “단지 피부 깊숙이에 있는 것으로 연합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다음은 교회의 일치를 돕는 7가지 인식 변화이다.

1. 일치가 주님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잠시 시간을 내어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읽어보라. 이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가장 긴 기도이며,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일치하는 주님께 몹시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한다.

2. 몸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을 것을 권한다. 손은 발만큼 필요하다. 눈은 귀만큼 필요로 한다. 즉,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날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다.

3. 예수님 안에서 공통점을 찾으라.

당신의 간증을 서로 나누라. 주님과 그의 관계와 그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대화하라. 좋아하는 성구나 영적인 진리를 공유하라. 차이점을 찾기 전에 한 가족으로서 연대감을 찾으라.

4. 형제자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반향실에 살거나 단지 자기 입장이 옳다고 논쟁하기보다, 당신의 기독교 동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라. 당신은 왜 나와 다르게 투표하는가? 특정 문제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통찰력을 얻고 어느 정도 공감

하게 될 것이다.

5.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희화화’ 시키지 말라.

우리는 자신에 대한 미사여구에는 많은 좋아요와 조희 수, 그리고 아멘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에 찬사를 보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누구나 조롱하고 희화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와 의견이 다른 동료 신자들에 대해 진실하게 말하려면 인내와 은혜와 겸손이 필요하다.

6. 다른 신자들을 폄하하지 말라.

존경하는 동료 중 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신체 부위라 해서 잘라내선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너무 빨리 취소하고, 버려야 할 쓰레기인 듯이 치부하며, 무가치한 것처럼 거부한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경적 교훈(이 점을 강조한 요한일서 1장을 몇 번 읽어보라)과 반대된다. 경멸하고 무시하며 모욕하는 태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7.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당신의 중보 기도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변화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륜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하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일시 2022.9.13 (화) 10:00~15:00

장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일시 2022.9.19 (월) 10:00~15:00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 ① 강사 저서 증정
- ②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③ 꿈미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④ 한국 방문시 오륜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⑤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등록 QR 코드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례예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섬김이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코너)
T. (213)386-2233

씨니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세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믿음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로 세울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r)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전도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323) 897-5751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디오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영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아기기도(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글렌데일, LA 북부 지역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랑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정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ukm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美 텍사스주 공립학교 “하나님을 믿는다” 문구에 반발



©WZTV 보도화면 캡처

텍사스주에서 모든 공립학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국가 모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 ‘SB 797’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가 아랍어로 쓰여진 문구와 무지개 배경으로 된 표지판은 거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달러스에서 서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사우스레이크에 위치한 캐롤 인디펜던트 교육구(Carroll Independent School District)는 지난달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무선 제공업체 ‘패트리엇 모바일’(Patriot Mobile)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담긴 여러 표지판을 받았다. 이 회사는 텍사스 교육청에 보수측 인사를 더 많이 선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우스레이크반인종주의연합(Southlake Anti-Racism Coalition, SARC)은 “이는 세속적 공공기관에 대한 노골적인 종교의 침해”라며 시스템적이고 반인종차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캐롤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이미 이 모토에 관해 여러 대안 버전을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다양한 디자인 이미지는 트위터에서 공유됐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성명에서 이 단체는 “학교 측은 종교적 메시지가 담긴 표지판을 학교 주변에 설치함으로써 세속적 환경에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 또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SARC는 또 사우스레이크 학교의 학부

모 스라반 크리슈나(Sravan Krishna)의 영상을 공유했는데, 이 영상에서 크리슈나는 무지개 배경과 아랍어로 쓰여진 모토가 있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표지판을 선보였다.

캐머런 브라이언(Cameron Bryan) 이 사회 의장은 “해당 법령은 학군이 한번에 두 개 이상의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의장과 SARC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도 별다른 응답이 없었다.

SB 797 법안은 표지판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 키샤(Keisha Russell) 변호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누군가 제공한 모토를 표시해야 하지만 수정헌법 제1조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은 “이번의 경우 표지판은 정부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특정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개인들이고, 정부는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메시지 논쟁은 텍사스 북부의 일부 학교에 큰돈을 투자한 패트리엇모바일이 지난달 캐롤 인디펜던트 교육구에 관련 표지판을 기증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노래로 언어장애 극복한 美 오디션 스타 “하나님께 영광”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 결선 진출자 아만다 맘마나. ©유튜브 영상 캡처

시티페스트 전도집회서 간증

미국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결선 진출자 아만다 맘마나(Amanda Mammana·19)가 앤드류 팔라우 목사의 전도 집회에서 언어장애를 딛고 일어난 사연을 간증했다.

맘마나는 올 여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노래가 일상에서 매일 직면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최근 앤드류팔라우협회(Andrew Palau Association)에서 주최한 시티페스트(CityFest)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그녀는 “저는 약 10년 동안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이것은 날 부끄럽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할 때는 더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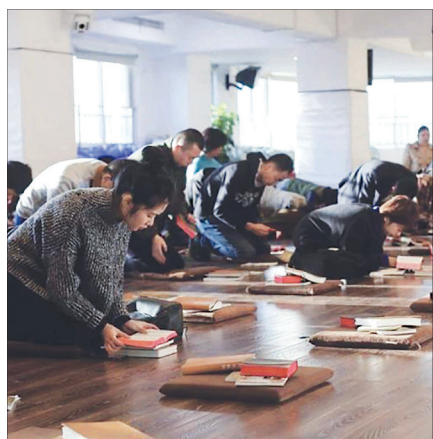
그녀는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 되었다. 노래 경연을 준비하는 동안 매주 진행된 도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했다.

이어 “성령께서 방금 내 안에 불을 지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성도들에게 매일 안팎으로 들리는 경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격려했고, 그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이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중국 정부, 예배중 체포한 이른비언약교회 교인 석방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이른비언약교회 제공

당시 압수수색을 당한 교인 60여 명은 건물 안에 갇혀 있었고,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야 풀려났다. 그러나 심은 당국의 요구에 불응했고 결국 체포됐다. 중국 당국은 이른비언약교회의 모임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집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 USA)에 따르면, 중국에는 현재 97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중국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ICC 동남아 지부 담당자인 지나 고는 “이른비언약교회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탄압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일지라도,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 무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18년 이른비언약교회의 왕이 목사와 칭더푸 장로가 수감된 후, 가정교회에 대한 학대와 박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모든 가정교회가 말살되고, 중국 내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5개 국영 종교단체인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 삼자애국교회, 중국가톨릭애국협회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ICC에 따르면, 중국은 독립 종교 단체를 공산당의 관할권에 두려는 강제 조치를 시행했고, 그 결과로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소 100건 이상의 기독교인 박해가 발생했다.

2022년 오픈도어선교회가 꼽은 ‘기독교 교인이 되기 가장 위험한’ 상위 50개국 중 중국은 17위에 올라왔다.

김유진 기자

최근 예배 도중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된 이른비언약교회의 교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컨서너’(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후허시에 제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 20여 명이 다방을 급습해 예배 중이던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을 조사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심 흥웨이는 지난 26일 재판 중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른비언약교회는 최근 기도 요청 업데이트란에 심의 석방 소식을 알리며, 그의 부인과 함께 교인들이 경찰서에서 그를 데려왔다고 전했다.

심은 12일간의 구금 기간 동안 뇌수막염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교회에 따르면 석방 환영식에서 그는 “(감옥) 밖에선 할 수 없었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는 농담과 함께 “수감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며 감사를 표했다.

WCC 제11차 총회 주요 어젠다는 ‘기후 위기’



WCC 제11차 총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WCC

총회 관계자들,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조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부터 독일 카를스루에 콩그레스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는 기후 등 환경 위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WCC 총회 관계자들은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climate crisis)를 강조했다.

WCC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대한 WCC 사역 그룹의 조이 케네디(Joy Kennedy) 조정관(moderator)은 이날 자신이 이 그룹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음을 밝히며 “기후 변화는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할머니로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삶을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웨덴교회를 대표해 이번 WCC 총회에 참석한 줄리아 렌스버그(Julia Rensberg) 씨는 “저는 사미족(Sami, 스웨덴 등에 사는 소수민족-편집자 주)으로서 ‘창조의 날’을 기뻐한다. 자연은 아름답고 환상적”이라고 했다고 WCC는 전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기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북극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녀는 “우리는 오랫동안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봐 왔다”고 했다.

그녀는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WCC에 따르면 트리니다드토바고 장로교회의 대표인 비존 와드(Bjorn Warde) 씨는 “우리는 오늘날 이 창조세계를 기뻐한다.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땅에서 일어나는 홍수와 해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보게 된다”고 했다.

그는 “아름다운 카리브해 지역에 사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목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WCC 요한 사우카(loan Sauca) 총무 대행은 전날 총회 개막 현장에서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그 밖에 세계에서 많은 도전들과 관련된 보고를 했다.

그는 “이 시대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된다. 우리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간다면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WCC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카를스루에에서 이번 WCC 제11차 총회를 참관하고 있는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상사에 대한 관심이 인류에게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궁극적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교회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찬양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OC예배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 주일 오전 5:30 토 오전 8:00
새벽기도 주일 오전 5:30 토 오전 6:00 2331 W. Orangeflor Ave, Fullerton, CA 92833
19514 Rensd St., Northridge, CA 91321, 818583-9887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교리(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유저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대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종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아인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예배 오전 9:30, 11:30
한어찬양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김한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umc.org

림학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애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별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남성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제자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성령강림: 매일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flor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안상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68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실크 웨이브 미션(SWM) 북미주 이사회를 다녀와서”

지난 8월 29일부터 3박 4일간 시애틀 형제교회(권준 목사)에서 실크웨이브 선교회의 이사 총회가 열렸다. 미주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을 잡고 사역하는 20여 교회의 담임목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회를 통해 담임 목사들이 장단기 선교 계획을 세우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였다. 아울러 KBP(Kingdom Business Partners) 이사회도 같은 장소에서 3일 앞서 열렸다. KBP는 사업을 운영하는 선교 비전을 가진 교인 리더십들이 모여서 선교 현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 기금을 마련하여 조달하는 비전을 갖고 선교사역 재정을 담당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선교 모임이다. SWM의 사역을 동역하기 위한 재정 협력 단체로 KBP가 세워졌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교회들과 연합하여 후원하는 현지인 사역자 가정이 61유닛이 된다. 몇 분의 개인 개척자가 있기에 유닛으로 표현했다. 그들에게 평균 매월 500불씩의 선교 후원비를 제공하면서 지교회들은 일년에 한두 차례씩 교회의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교회 개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필자가 이사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전문 선교 단체와 후방의 지역 교회와의 협력과 연합 선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교회들이 선교회에서 안내하는 선교 계획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교 대 사명을 선교회의 도움으로 아름답게 결실 있게 수행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에 감사했다.

이번 이사회를 지켜보면서 감사한 것은 지교회는 SWM의 비전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전문 선교 단체는 지교회들을 선교지로 인도하는 매우 아름다운 모범적 사례들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를 선교 단체들은 전문적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지 반가운 것은 이번 이사회 총회에 신임 이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처음 시작한 이사목사들이 이제 60대가 되어가는데 신임 이사들은 40대, 50대의 젊은 1.5세, 2세의 목회자들이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그리고 KBP의 이사들은 연령층은 높은 편이나 대부분 EM 사역자들이어서 더욱 기대되는 것 같다.

다음 총회에서 보고 될 앞으로의 선교 스케줄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내년이 기대됨을 말하였다. 그렇게 한 선교 단체 사역자들의 모임이 마쳐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작가가 진 에드워드(Gene Edwards)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South 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그는 3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뛰어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그는 탁월한 문장력, 상상력, 그리고 신학적 소양으로 준비된 탁월한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한마디로 잘 갖추어진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작가 진 에드워드의 가장 탁월한 점은 간단한 이야기에서 깊이 있는 믿음의 교훈을 끌어내는 통찰력입니다. 또 그는 거의 모든 성경을 이야기체로 풀어 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담은 다수의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컨대, 사울, 다윗 그리고 압살롬 세 왕에게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을 정리한 “세 왕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 세기의 일들’, ‘이야기 사도행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 에드워드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일기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즉 ‘디모데의 일기’, ‘살라의 일기’, ‘브리스길라의 일기’, 그리고 ‘디도의 일기’, 등등의 책들이 진 에드워드가 저술한 책들입니다.

전도자로 가정 교회 운동가로 활동하는 진 에드워드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그가 인도하는 세미나와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품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환란과 핍박을 이겨냈던 힘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이 복음의 능력을 품은 삶은 세상을 밝히는 힘입니다.

‘신의 열애 (the Divine Romance)’는 진 에드워드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Romance)이 주제입니다. ‘신의 열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하고 못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의 열애 (Divine Romance)’의 강점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리를 딱딱한 종교적 틀이 아닌 소설적 묘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줍니다.

천상의 하나님 사랑을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관점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인간적 차원으로 묘사하다보니 이해하기는 쉽지만, 신학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설은 4부와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여섯째 날의 창조 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창조 사역 후 고단하신 하나님께서 독자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 독자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움을 극복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에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자신만이 짝이 없음을 깨닫고 외로움에 하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아담에게 짝을 허락하시려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대비합니다.

2부는 출애굽 여정을 다룹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열애)를 직접 체험하고 누린 시간입니다. 여든이 넘는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의 불순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부 후반부는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22년 동안 마을과 마을을 헤매며 다녔던 선지자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또 사랑에 빠졌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설명

합니다. 호세아를 택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에도,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애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부는 세례 요한의 광야 생활을 묘사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청년 예수가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찬사와 칭찬에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장 목적이 ‘신랑을 신부에게 소개해 주려고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설의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소설적 묘사로 채색하였습니다.

4부는 예수님의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룹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며 예수님을 장례 합니다. 이어지는 스토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설 <신의 열애(the Divine Romance)>는 진 에드워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열애)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해석하고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진 에드워드는 탁월한 상상력과 섬세한 묘사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감 나게 묘사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로맨스를 즐기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는 이 책의 한글 제목에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the Divine Romance’를 ‘신의 열애’ 보다는 ‘하나님의 로맨스’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맨스가 문학적으로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열애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번역 제목 “하나님의 열애”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애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애를 충분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TS 준회원. 미래는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TS 준회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TS, ATS 준회원.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915 S. Olive St., Azusa, CA 91702.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하나님이 없다하는 자의 하나님(2)

시편 53: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노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 진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

하나님이 없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입니다. 성도가 땅에 사는 동안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훼방과 대적과 횡포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마귀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처럼 만사형통하고 순풍에 돛을 단 듯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하면 기도도 신앙고백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세상조건에 머물고 싶어 하늘소망을 내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소속관념을 분명히 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성령을 모셔 살아갈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늘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당하는 어떠한 핍박과 고통도 참고 이겨내서 끝까지 하늘영광중에 결실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종국(終局)에는 본문 6절과 같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도다”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을 대칭(代稱)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은 반드시 성도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해가고 세속화 추세로 현실에 자꾸만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은 환란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짓이었던 가짜신도는 세상으로 다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성도는 오히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

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세력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사적인 문제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목자는 그 양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목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국(時局)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더욱 확실하게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후회 없는 신앙으로 영광중에 결실하도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왜 매를 준비하셨는지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실망스러움을 보여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 소망스러운 믿음을 인정받는 한국교회 모습이었던 하나님 매를 드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로서는 회개운동(Repent Movement)을 일으켜야 합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인 샘이 있었고 같은 대학에 물리과 주임교수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도 비슷하고 서로 친한 사이이지만 샘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인이고 톰슨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고 큰소리를 치며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사람을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자기 것이니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으로 만끽하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톰슨에게 샘은 열심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외과의사로 수천 명을 수술했는데 그중에는 우리의 의학 상식으로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수술을 했음에도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두어 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석 달이 넘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간 교회를 다니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온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듯싶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다 나은 것 같은데,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해봤더니 사방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는데 불에 탄 흔적만 남아 있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톰슨에게

말을 했을 때 톰슨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너가 예수 올무로 나를 얽어매려고 온갖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나는 절대로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벌을 줘보라고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샘은 늘 톰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톰슨은 그런 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49세가 되던 해 샘은 그의 부인으로부터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 알아보니 그가 에이즈에 걸려 살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 처치 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잠을 계속 못 잔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면 온갖 구멍이가 자신을 통째로 삼키려고 온몸을 감고 목을 조여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에이즈도 하늘의 형벌이겠지만, 마귀에게 시달리는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면 3년 정도 더 살겠고 그렇지 못하면 일 년 안에 죽겠지만 악몽으로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몸은 여위어가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샘이 병원에 찾아 왔을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실까?”하고 묻습니다. 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조여가시는 것은 너를 택하신 증거가 아니겠

는가”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었다면 이런 병과 악몽으로 시달리는 생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는 친구 샘의 이 한마디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한 후 용서받은 평안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기와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내가 멸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하며 후회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영이 부끄러운 구원은 얻었다라는 고백서가 어느 신문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악령에 깊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고 허황된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괜히 악을 쓰고 대적하면서 발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하다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악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깨닫게 하심을 바라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울카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강준민 칼럼

절박함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최근 제 생각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절실함과 절박함입니다. “절실함”이란 “느낌이나 생각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박함”이란 “어떤 일이나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하다.”는 뜻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가끔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은 벼랑 끝에 선 상황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이 때로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물론 모든 절박한 상황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 잘 반응할 때 변장된 축복이 됩니다. 절박함을 어떻게 변장된 축복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

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압박 강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형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야반도주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힘겨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이 축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암 5:6상).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시면 만나리라”(신 4:29하).

둘째, 절박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손을 펴게 됩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움켜쥔 것들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절박하다는 것은 죽음 앞에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대면해야 할 때 그는 죽음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집착했던 많은 것들을 내려

놓습니다. 야곱이 압박 강에서 기도할 때 그의 가족과 소유를 먼저 건너게 합니다.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압박 나무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창 32:22-24상). 내려놓음이 자포자기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홀로 기도했습니다.

셋째, 절박할 때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우리는 항상성의 원리를 따라 변화보다 안전을 원합니다. 항상성이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가끔 안전지대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그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대화를 엿듣고 변화를 시도합니다(창 31:1-2). 또한 그가 압박 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태도와 같은 방

법을 반복할 때 같은 결과만 얻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은 것이면 계속 반복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언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분별하고,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계절에 따라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절박할 때 문제 해결책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저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도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멘토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시면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구하는 것과 함께 찾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마 7:7 상).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6-②

메타버스 속 범죄

메타버스 속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에서 생활할 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까요?

〈메타버스 골드러시〉, 민문호 저자는 MZ 세대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현실과 같은 유형이지만 사법권을 적용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재하지 못하는 범죄도 자주 발생할 거로 보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잇할 권리에 대한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발달로 인한 범 분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폭력, 성범죄, 사기,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말이죠. 게다가 메타버스에 과도하게 몰입하면 현실 세계의 나와 가상 세계의 나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

나요? 바로, 아직 메타버스 안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에 더 불법이 성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좀 더 조심해야 합니다.

3) 셋째, 성폭력 혹은 성희롱입니다.

메타버스 안에 딥페이크 기술이 있는 데요. 이런 기술을 통해 누군가의 얼굴을 넣어 성적 문제를 일으키고, 성희롱을 할 수 있습니다.

〈세븐 테크〉, 공저자 김상균 교수는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성희롱이 발생하는지 말합니다.

“한 플랫폼에서 소규모 공연이 있었는데 객석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남성 아바타 하나가 한 여성 아바타 뒤에 붙어서 너무 많이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인사 동작이나 손 흔드는 동작 버튼을 자주 누르는 것이다. 사실 이는 명백한 성추행이다. 실제

여성 아바타도 자신에게 몸을 밀착시키는 남성 아바타의 행위를 친숙함의 표시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이처럼 기존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결을 갖는 불편함, 안 좋은 일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인간간의 말초적 본능이 살아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4) 넷째,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메타버스 안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고,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 지식재산권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도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섯째, 사기 혹은 금품 갈취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금전적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 중 서로 아이

템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과정 가운데 사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아이템을 팔려고 내려놓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아이템을 습득하고는, 재빠르게 로그아웃을 해 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안이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



김영한 목사
품는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자원봉사자 모집

WE BRIDGE CONFERENCE

9/26(월)-28(수) | 토렌스조은교회

- 대상: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가능
- 시간: 하루 혹은 반나절도 가능
- 봉사: 컨퍼런스 세팅, 안내, 식사, 간식, 숙박 등 다양한 곳에서 컨퍼런스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

문의: 기독교일보
213-739-0403 / 213-434-1170



진유철 칼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점점 좋아진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영화 '나 홀로 집에' 나온 어린 주인공, 맥 커런 컬킨의 당시 수입은 약 1700만 달러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아빠 엄마가 서로 소송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상처 속에서 어려서부터 마약을 하고, 일찍 결혼은 했지만 이혼하는 등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져서 외모조차 너무 늙어 보여 놀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동네와 같은 좋은 조건과

환경을 추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겉모습이나 환경은 한 순간에도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고 또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왕이 되었고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게 되었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서 한 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처음부터 막내요 힘이 없어 광야로 도망 다니고 쫓기는 자였지만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강해져서 더니 남북을 통일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점점 좋아지는데, 첫째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울 왕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인데도 장남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는 장남을 우대했기에 옷차림과 외모의 모든 것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삼상 16:7)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완전 숫자인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냈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무엘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려면 둘째, 쓰임 받는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쓰임 받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였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쓰임 받는 현장으로 나갔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강해졌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수록 현장에서 쓰임 받기보다 지식과 스펙만 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배우는 지식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신학이나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배의 현장, 봉사의 현장,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 없습니다. 부딪쳐야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운전석 옆에 있었던 사람은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즐기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잘 알 수 있고 다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좋아지게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김 중 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그 의미는 "흩어진(Scattered)"이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처음에 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유대교적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해온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유대인 외에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그 공동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동족을 가리켜 '디아스포라(Diaspora)'라고 부른다.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더불어 세계로 흩어진 한민족 초기 이민자들을 '한민족 디아스포라'라 부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은 19 세기 말부터 한민족을 러시아 연해주로, 중국 만주로, 미국 하와

이로, 멕시코 유카탄으로, 쿠바로 흩으셨다. 이들의 이민사를 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를 재해석하면, 고통과 슬픔 너머에 한민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창세기 45 장 7 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의 위대한 신앙고백이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비참한 노예이민자의 삶이었다. 남도 아닌 가족에게 버림 받아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늘 정직하고 성실했지만, 누명을 쓰고 시위대 감옥에 수감된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런 고난과 슬픔의 개인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풀어낸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는 올바른 사명 인식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

니' 이는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 확립이다.

고난의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픔의 순간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요셉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었고 상처가 사명이 되었다. 요셉은 70 명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가족을 200 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시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성취다. 만약, 야곱가족이 기근으로 몰살 당했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왕 다윗은 없었으리라. 다윗이 없었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그리스도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경륜인가?

우리는 마지막 시간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다.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먹여주는 풍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만 가고 있다. 이때,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민족을 선택하셨고, 세상에 흩으셨다. 이들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우리는 이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

와 사명'을 듣게 될 것이다. 한민족을 세상에 흩으시고 마지막 복음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경륜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다.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리 보냄 받은 자"다. "나는 이 시대의 요셉"이다. 비록 요셉은 배신을 당했고, 억울한 일을 경험했지만, 기근의 때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했다. 요셉이 경험한 아픔은 청소년기 성장통이다. 청소년기에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 동일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기에 온 인류가 평화를 얻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영광의 부활은 없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반전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마무리하신다. 초기이민사 가운데 나타난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일을 위해 '미리 보냄 받은 자'가 바로 '한민족 디아스포라'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생명보험 IRA, Annuity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Amount	\$300,000		\$500,000		\$1,000,000		Amount	\$100,000		\$300,000		\$500,000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Ag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30yr	\$17	\$20	\$25	\$30	\$45	\$54	30yr	\$50	\$51	\$150	\$153	\$250	\$255
40yr	\$24	\$30	\$36	\$46	\$67	\$86	40yr	\$78	\$80	\$234	\$240	\$390	\$400
50yr	\$43	\$60	\$68	\$97	\$131	\$188	50yr	\$127	\$132	\$381	\$396	\$635	\$660
60yr	\$116	\$169	\$189	\$278	\$373	\$550	60yr	\$239	\$242	\$717	\$726	\$1,195	\$1,210

(20년 고정가격 순수 Term 생명보험 최상급 비율이자 Rate 할 보험/나이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 다를 수 있음) (약자금 조성, 노후 연금, 원금보장 저축성 종신 생명보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30년 사고방식만 변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이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밥, 오뎅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이성구의 기독교 문학을 만나다] 순례자 놀이와 천로역정 놀이

영화화된 소설 '작은 아씨들'에 흐르는 기독교 문화



작은 아씨들
루이자 메이 울컷 | 감미경 역
RHK | 976쪽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선물 같은
시간 속으로의 여행

흐르는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육지를 감싸면서 끝이 보이지는 격랑이 이는 넓은 바다가 있고, 바다보다는 작고 그 끝을 짐작할 수 있는 거센 물살의 강물이 있으며, 작고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시냇물은 강이나 바다처럼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기보다는 산 속이나 들을 지나가다 자연스럽고 우연히 만나는 일상에 가까운 흐르는 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은 아씨들>은 이런 시냇물과 같은 책입니다. 줄거리는 미국 남북 전쟁이 진행중이던 1860년대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 사는 마치 가족의 네 자매 메그, 조, 베스, 에이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서에서 고전이라 함은 수많은 책들 중 오래도록 사랑받는 책을 말합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의 1부가 1868년 출간되었으니, 152년이 지난 책입니다. 고전에 속합니다.

흔히 '고전(古典)은 고전(苦戰)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전은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이라 의미있고 재미있을 거라 생각하고 읽으려 하지만, 막상 읽어보면 너무 어렵거나 지루해서 읽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선 오래 전에 나온 책이라 당시 시대상이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 사조의 흐름과 현대의 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문체를 독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고전이 외국 책이라면, 이 어려움은 배

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충분히 '선전(善戰)'할 수 있는 고전입니다. 주제가 지극히 소소하면서 일상적이라 쉽게 이입이 되고, 문체도 현대적입니다.

네 자매의 모습은 우리 이웃의 모습이고, 자녀가 있는 가정, 특히나 자매만 있는 가정, 특히나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자매를 둔 가정에서는 너무도 빨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 문학에 분류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책은 그 색채가 더합니다.

책의 첫 장의 제목부터가 '천로역정 놀이'입니다. 존 번연의 기독교 우의소설인 <천로역정>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은 책의 중간 중간에 자주 나옵니다. 또한 인물들 간의 대화나 상황을 설명할 때 성경 구절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시로 인용되고, 기독교적인 가풍은 대화에서 자주 나옵니다.

둘째 조가 전쟁터에 간 아버지를 담담히 보낸 어머니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하다 시간이 지나 흔들리는 모습에서, "엄마 아빠더러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게다가 아빠가 집을 떠나실 때도 울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불평 한 마디 없이 잘해나고 계시잖아요"라고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래서 아빠가 떠나실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거야. ... 내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건 아빠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란다.

너를 괴롭히는 인생의 수많은 유혹과 난관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더 많아질 거야. 하지만 네가 지상의 아버지에게서 느끼듯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모두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네가 그분을 사랑하고 믿을수록 그분의 존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인간의 나약한 힘과 지혜에 덜 기대게 될테고, 그분의 사랑은 지지거나 변하는 법이 없고, 평생에 걸쳐 평화와 행복과 힘의 원천이 되어준다.

조, 내 말을 믿고 엄마한테 털어놓는 것처럼 그분에게도 네 근심과 소망, 죄와 슬픔을 숨김없이 털어놓거라(173-174쪽)."

그 어떤 신앙적인 글보다 감동적이면서 기독교적 색채가 자연스럽게 묻어있는 글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가 억지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분위기이고 가풍입니다.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가난'입니다. 자신의 가정은 가난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다못해 결혼한 첫째 메그의 남편 존은 메그에게 '자신은 가난하니 돈을 아껴쓰라'고 합니다.

메그가 가난한 존과 결혼 전, 고모가 "결

혼은 현실이니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지 말라"며 부자인 청년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메그의 뜻을 존중하여 존과의 결혼을 찬성합니다. 이때 둘째 조가 어머니에게 "언니를 부자랑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묻자, 어머니는 돈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답을 내립니다.

"물론,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난 내 딸들이 돈에 너무 쪼들리며 사는 것도 바라지 않고, 돈에 너무 집착하며 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존이 확실한 자기 일만 있다면 엄마는 그 걸로 족해. 빛을 안 지고, 메그를 고생시키지 않을 만큼의 수입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지위와 돈에다 사랑과 미덕까지 겸비하고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겠지. 하지만 행복은 평범하고 작은 집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단다(418쪽)."

다분히 청교도적인 말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자매들이다, 자주 등장하는 '가난'에서도 책 어디에서도 불행하거나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시종 잔잔하게 흐르다, 마지막에 가서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합니다. 셋째 베스가 아픔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스를 간호하던 언니 조가 슬픔에 빠지자 베스는 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알아.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난 언제까지나 언니의 베스로 남아 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 언니 자신을 사랑하고 돕도록 할 테니까. 이제 언니가 나 대신이야.

내가 가면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 엄마 아빠는 언니한테 의지하시려 할 거야. 그 기대 버리지 마. 혼자 집을 지는 게 힘들면 내가 언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럼 훌륭한 책을 쓰거나 세계일주를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쉽게 떠날 수 있어(834쪽)."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고, 사랑이 있으면 쉽게 떠날 수 있다."

삶의 진실은 큰 이야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진실은 대단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소소한 곳에 흐르는 우리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네 자매이지만, 대체로 둘째 조에게 비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자가 네 자매의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등 조의 많은 부분이 저자와 닮아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면은 책에서 조는 결혼을 하였지만 저자는 53세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자의 성향답게, 이 책은 많은 문학 서적과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당시 기독교적인 문화 못지않게 문학의 문화가 이 작은 가정의 삶에도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알 수 있어 내심 부러웠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의 원제는 'Little Women', 한글 제목과 같습니다. 2부의 원제는 'Good Wives', '좋은 아내들'입니다. 즉 여성에서 아내로의 성장을 다룬 소설입니다.

흥미로운 건, 저자의 삶은 진보적이고 급진적이었음에도 제목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책이 영화로 나오면서 몇 곳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이 출판사의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1868년 오리지널 초판본 표지에 영화 장면을 피자로 넣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1부 1장 제목이 다른 출판사의 책은 '순례자 놀이'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천로역정 놀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원문은 Playing Pilgrims).

번역자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있고, <천로역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 번역자가 <천로역정>을 읽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중간에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과 동행하는 소망(hopeful)이라는 인물을 영어 발음 그대로 '호프풀'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책에 대해 어떤 사람은 '번역이 다른 책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아주 잘 번역한 책이고, 번역자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저자답게 아주 많은 부분에서 소설의 인물들과 그리스 신화의 신들,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일일이 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번역자의 수고가 돋보이는 부분이고, 편집도 매끄러웠습니다. 더욱이 영화 스틸컷이 33컷 수록되어 있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976쪽에 달하는 두꺼운 책이지만 분량에 비해 가격도 착하고(16,500원), 이야기도 일상적이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카피가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한편의 소설이다'입니다.

소설이란 사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뻔하고 진진한 모습의 모습도 읽을 만한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이 공감가는 이유가 소설의 주제와 내용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나의 이웃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소설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대중적이면서 세계적인 공감의 소재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민지 않는 일반 독자들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나라에선 이런 좋은 기독교 문학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성구(서평가)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저희 미용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를 사전 예약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10:00 AM ~ 8:00 PM 토요일 09: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하우스 오브 드래곤> &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1)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공통점

북유럽 고대 신화 및 중세 시대 서사, 주된 모티브로 유럽·미국 대중문화계 이교주의 매혹적으로 현대화 기독교 문화요소 배제 이교주의 대서사극 전성시대 종교다원주의 추구하는 정치적 올바름 득세도 역할

◆판타지 대중문화와 유럽 이교주의: 켈트, 게르만 이교주의를 전수하는 판타지 대중 문화

전 세계 대중문화계에 굵직한 족적을 남긴 두 편의 판타지 대서사극, <왕좌의 게임>(2011-2019)과 <반지의 제왕>(2001-2003) 시리즈 프리퀼이 두 주간 터울을 두고 거의 같은 시기에 방영되면서, 흥행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1일에는 <왕좌의 게임>의 200년 전 이야기를 전하는 <하우스 오브 드래곤>이 공개되었고, 9월 1일에는 <반지의 제왕>의 5,000년 전 이야기, <실마릴리온> 시대의 이야기를 전하는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가 공개되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총 10편의 에피소드,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총 8편의 에피소드가 방영될 예정이다.

두 작품 모두 방대한 스케일의 신화와 역사를 서사의 주된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물론 두 작품이 다루는 신화, 혹은 역사의 내용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1066년부터 1135년까지 영국을 다스린 노르만 왕조의 역사를 모티브로 삼고 있으며,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는 고대 북유럽 게르만(특히 앵글로색슨) 신화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그리고 보면 확실히 영국의 전설, 신화, 역사, 그리고 문학은 전 세계 대중문화계에 어필하는 힘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 식민지에 산재하고 있던 고급 문화유산을 적극 강탈하고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 문화와 언어를 세계화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들이 영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동경심 또한 영국 문화가 세계 대중문화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이렇게 북유럽 고대 신화시대와 중세시대 서사를 주된 모티브로 삼는 영화나 드라마는 유럽에 오래 뿌리내리고 있던 이교주의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기독교 전파가 먼저 시작되었던 지중해 지역과 지리적으로 먼 다뉴브 강 이북과 북부 프랑스, 브리튼과 아일랜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중세 후반까지도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이교주의 문화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는 유럽의 중세 및 근대 초기 문학에서

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아더 왕의 전설에 등장하는 켈트족 드루이드 멀린이나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등장하는 마녀들, 그리고 <니벨룽의 노래>에 등장하는 발퀴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교적 요소들은 중세 가톨릭의 토착화를 초래하면서 기독교 문화와 기묘한 공존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유럽의 이교주의 및 주술문화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것들이 유럽의 전설이나 민담 등 구전 문화유산과 서사시 등 기록 문화유산의 내용과 색채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보다 강력한 매력을 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판타지 대중문화와 기독교: 기독교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판타지 대서사극

이러한 이유로 근현대 유럽과 미국 대중문화계는 기독교 문화를 주된 근간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이교주의 요소의 보존과 개발, 활용에 힘쓰고 있다. 이교주의 종교문화를 원래 모습보다 더 매혹적인 모양새로 현대화시켜 문화전파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임스 매튜 배리의 <피터와 웬디>, J. R. R. 톨킨의 <호빗>과 <반지의 제왕>, 그리고 C. 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작품 가운데서 특히 톨킨의 작품은 오늘날 판타지 장르문학의 효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 한들 1970년대까지 대중문화계에서 이교주의 문화요소는 실제 중세 문화유산에서 살필 수 있듯이 기독교 문화요소와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80년대 중반, 리들리 스콧의 <레전드>(1985), 조지 루카스와 론 하워드의 <윌로우>(1988), 그리고 결정적으로 짐 헨슨의 <라비린스>(1986)와 TV 시리즈인 <스토리텔러>(1988-1989)가 연달아 제작되면서 부터였다.

이 작품들은 2000년대의 <해리포터>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 시리즈만큼의 흥행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훗날 신화와 대서사시를 근간으로 삼는 판타지 서사 대중화의 기반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 1980년대 판타지 작품들이 감



<왕좌의 게임> 시리즈 프리퀼 <하우스 오브 드래곤>.

독이나 제작자의 성향 때문에 기독교 문화요소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고대와 중세 유럽의 이교주의 문화요소만 미화하고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리들리 스콧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앞장서서 반종교 메시지를 전하는 감독이고, 조지 루카스는 히피 문화와 불교에 심취했던 전력이 있으며, 현대 인형극과 판타지 영상화의 대가 짐 헨슨은 한때 신종교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심취했던 인물이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일종의 현대화된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인간의 과학지식이 극단에까지 이르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이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요소와 친숙하지 않거나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80년대 중후반 판타지 대중문화의 초석을 놓았고, 이는 1990년대 CG 기술의 급격한 발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해리포터>라는 초대형 흥행작을 발표한 J. K. 롤링의 등장에 힘입어 오늘날 이교주의 판타지 대중문화 장르의 대대적인 흥행과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판타지 서사가 기독교 문화요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된 데는 특정 종교의 믿음이나 가르침에 연연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겠다는 정치적 올바름(PC) 이념의 득세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정치적 올바름 이념은 사실 종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혀 공정하지 않고, 기독교 편에 유독 노골적인 적개심을 보인다. 불교나 이교주의, 토착신앙, 이슬람 등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기독교 신앙이나 문화요소에 대해 언급하거나 소개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정치적 올바름 이념이 대중문화계의 주된 정서를 이루면서, 원래 판타지 장르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던 기독교 문화요소는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런 분위기는 이번에 공개된 <하우스 오브 드래곤>과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톨킨이 기독교적 인간이해를 표방하려는 의도에 의해 집필한 작품이긴 하지만, 작품 자체에 기독교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기독교적 문화 요소를 찾으려면 작품의 메시지를 살펴야 하는데,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의 영상과 메시지는 톨킨이 원래 의도했던 기독교적 인간이해는 거의 드러내지 않고 게르만 신화 요소와 정치적 올바름 이념의 메시지 전달에만 주력하고 있다.

<왕좌의 게임>과 <하우스 오브 드래곤>은 기독교가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잡고 있던 영국의 노르만 왕조와 장미전쟁 시대를 모티브로 삼고 있지만, 현실과 완벽하게 괴리된 판타지 세계를 창조하려는 의도 때문인지 이교주의 요소를 발전시키고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데 주력한다.

작중 조로아스터교를 모방한 틀로 종교, 그리스 신화와 게르만 신화를 모방한 7신교, 고대 켈트족 종교를 모방한 고대신 종교가 등장한다.

이처럼 기독교 문화요소가 전적으로 배제된 채 유럽의 이교주의 주술문화를 미화하는 행태는 향후 제작되는 거의 모든 판타지 대중문화 작품에서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찬양사역자 청빙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LA 동부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 1. 예배 찬양 인도에 대한 소명과 경험이 있는 분
- 2. 성경적 가치관과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동의 하는 분

■ 사역 내용

- 1. 각 예배 찬양 인도 및 찬양팀 훈련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신앙 간증서
- 3. 추천서
- 4. 찬양 인도 동영상

■ 제출하실 곳

beautifulchurch@hotmail.com

■ 교회 주소: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 교회 홈페이지: www.beautifulchurch.org



부목사 청빙

캘리포니아 LA 동부 Chino Hills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동역하실 Full-time 부목사를 청빙합니다.

www.sunhanchurch.com

1. 지원 자격

- 1) ECO (복음연합장로교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www.eco-pres.org) 교단에 속해 있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 3) 현 거주지가 미국이고, 미국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필요시 종교비자 지원 가능)
- 4) 장년부 사역 유경험자

2. 모집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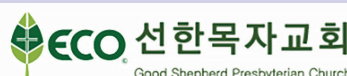
- 1) 풀타임 부목사 (1명)

3. 제출서류

- 1)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 미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신분 명시(예: 영주권자)
- 2) 자기소개서 1부 (신앙고백 및 간증문, 사역 및 일반 경력, 은사, 가족소개 및 사진)
- 3) 최근 1년 이내 실교 영상(2편): 유튜브 링크
- 4) 추천인 2명 이름과 연락처(추천인 1명은 현(최근) 사역교회 담임목사, 다른 추천인 1명은 이전 사역교회 담임목사이어야 함) - 추천서는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추천인에게 본 교회에서 직접 연락함.
- 5) 신학대학원(M.Div) 졸업 및 성적증명서, 대학교와 대학원(해당되는 분)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각 사본 1부

4. 지원 및 문의

- 1) 이메일 resume@sunhanchurch.com로 문의 및 지원해 주세요. 이메일로만 문의/접수를 받습니다.
- 2) 접수마감: 2022년 9월 30일까지
-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비밀을 보장합니다.
- 4) 1차 서류 심사 후 면접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5) 최종후보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혈당조절! ✓ 면역기능! ✓ 세포분열!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